

코스피 1000 깨지나... 금융시장 충격·공포

환율도 1400 돌파... 투자자들 '패닉'

정부의 강도 높은 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공포가 연일 국내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원·달러 환율이 10년4개월 만에 1,400선을 돌파하고, 코스피지수는 1,000선마저 위협받으면서 금융계와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23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84.88포인트(7.48%) 폭락한 1,049.71로 장을 마쳤다. 이는 2005년 7월12일(1,043.88) 이후 3년3개월 만에 최저치로, 1,000선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이날 코스피는 오전 9시49분께 사로그램 매도 호가를 5분간 정지시키

는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이를 연속 급락세가 이어졌다.
코스닥시장도 '골육'의 하루를 보냈다. 코스닥지수는 26.58포인트(7.92%) 하락한 308.95로 마감돼 사상 최저치로 '곤두박질' 했다.
코스닥시장은 또 오전 10시44분께 올해 10번째로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어 오후 1시5분에는 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사상 세 번째로 발동돼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이날 광주시 동구 총장로의 S증권사 객장에는 종일 한숨과 탄식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개미투자자'는 주가가 폭락해 온통 시퍼렇게 변해 있는 전광판을 쳐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주가가 직전 때 때 거래일의 증가보다 10% 이상 하락한 채 1시간 지속할 때 20분간 모든 종목의 거래를 중지시키는 제도. 누전 등으로 전기가 과도하게 흐를 경우 자동으로 회로를 끊어주는 부품인 '서킷브레이커'에서 유래했다.

다보며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장기적인 증시폭락 상황을 애써 외면해 온 '회피형' 투자자들도 이날만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투자한 종목이나 계좌 등을 일일이 확인하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외환시장도 지난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환란 직후 상황을 연상케 할 만큼 불안한 양상을 보였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45.80원 폭등한 1,408.80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와 관련,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국내 경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안정을 것으로 보이고 유가·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져 이를 고려해 금리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혀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망연자실' 23일 광주시 동구 총장로의 한 증권사 객장을 찾은 투자자들이 온통 푸른빛으로 물든 주식전광판을 침통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쌀 직불금 부당수령 1,430건

광주·전남 3년간...회수율 4.4% 그쳐
공무원 1,138명 신고, 현장조사 착수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농수산식품부에 쌀 직불금 부당 수령으로 모두 1천430건(6천307만6천원)이 적발됐으나 이 가운데 4.4%인 63건(617만1천원)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4면>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이 23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수산식품부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적으로 5만2천179건에 30억6천348만2천원의 직불금 부당신청 사례를 적발했다. 하지만 이중 17.9%인 9천326건(8억1천343만7천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82.1%인 4만2천853건(22억5천4만5천원)은 방치되고 있다. 특히 광주에서는 전체 적발 건수 626건(2천207만3천원) 중 2.7%인 17건(89만3천원)만 회수됐으며, 전남에서는 804건(4천100만3천원)가

운데 5.7%인 46건(527만8천원)만 돌려받는 등 광주·전남지역 회수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지난해 광주·전남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적발건수는 51건으로 평년 700건 내외의 10%도 안 되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미회수액은 통계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공무원의 쌀 직불금 자진 신고 나흘째인 이날까지 광주·전남지역 공무원 1천138명이 신고를 했다. 광주에서는 모두 226명이 신고했으며, 이 가운데 116명이 자진 신고한 시 분청의 경우 본인 신청은 27명, 나머지는 부인과 가족, 친인척 명의 수령이었다. 이 중 관외경작자로 쌀 직불금을 받은 사람은 20여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전남에서는 도 분청과 시·군청 소속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912명이 신고를 마쳤으며, 이들의 수령액은 지난 2005년부터 3년 동안 23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시·도는 24일부터 관외경작자 등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수 ‘블루 에코폴리스’ 조성”

세계박람회 심포지엄 ... BIE사무총장 “개최 기간 변경 없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여수를 신해양경제(Blue Economy)의 중심, 경제·환경·해양이 융합된 ‘블루 에코폴리스(Blue Ecopolis)’로 조성해야 한다는 비전이 제시됐다. <관련기사 3면> 23일 여수 디오센터에서 열린 '2012 여수세계박람회 제1회 국제심포지엄'에서 김도년 심판관 교수는 '여수박람회의 기본 구상과 기본 계획'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아직 미개척 분야인 블루 이코노미를 선점해 여수가 신해양시대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가 새로운 도

시모델로 제시한 '블루 이코노미'는 바다를 중심으로 한 새롭고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녹색성장 정책'과 연계,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서용 고려대 교수는 "박람회 개막식에서 여수선언(declaration)을 하게 되면 박람회 사상 여수가 처음이자, 이는 여수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전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해양국들이 여수선언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정부의 의지와 BIE(세계박람회 사무

국)의 조정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세르탈레스 BIE사무총장은 이날 심포지엄 폐막 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런던올림픽과 겹친다는 등의 이유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박람회 기간 변경 주장과 관련해 "여수박람회 개최 기간을 변경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BIE회원국들과 함께 여수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社告

제4회 광주일보 문학상 공모

48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제정한 '광주일보 문학상'이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합니다.
응모작품은 미발표 신작 또는 최근 1년 내 개간지 등에 발표한 작품이면 됩니다. 광주일보 신춘문학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작품 공모 및 시상 요강

- ▲응모 대상 =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작가
- ▲공모 분야 = 시, 소설, 동화, 희곡 등 문학 장르
- ▲대상 작품 = 미발표 신작 원고 및 최근 1년(2007년 10월1일~2008년 9월30일) 내 발표 작품
- ▲상 금 = 300만원
- ▲원고 마감 = 2008년 10월30일
- ▲제출할 곳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광주일보사 편집국 문화생활부 '광주일보 문학상' 담당자 앞 또는 emlee@kwangju.co.kr

광주일보사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승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26 / 062-222-8111

1021530-9318

www.segiboching.com